

2011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5	2	4	3	1	4	4	5	1
6	5	7	2	8	4	9	5	10	5
11	3	12	4	13	1	14	5	15	3
16	1	17	4	18	4	19	2	20	1
21	2	22	3	23	4	24	3	25	3
26	1	27	5	28	5	29	3	30	2
31	4	32	5	33	5	34	4	35	3
36	3	37	3	38	2	39	1	40	5
41	3	42	4	43	3	44	3	45	4
46	5	47	3	48	3	49	4	50	4

[듣 기]

<1번>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대 그리스의 우화 작가인 이솝 선생이 어느 날 어린이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늘 젊고 성실한 사람으로 존경 받던 이솝 선생의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이솝 선생은 대답 대신에, 현악기의 활을 집어 들고는 활줄을 느슨하게 풀어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어 보시오. 이 느슨해진 활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솝 선생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솝 선생이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속 활줄을 팽팽하게 매어 놓으면 끝내 그 활은 부러지고 맙니다. 따라서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활줄을 느슨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요. 내가 어린이들과 장난을 치며 노는 것도 활줄을 느슨하게 해 놓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교훈 파악하기

주어진 이야기는 그리스의 우화 작가인 이솝 선생이 활줄을 느슨하게 해 두는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줄을 팽팽하게 해 두면 활이 부러지므로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활줄을 느슨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이솝 선생의 말에서 때로는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추론할 수 있다.

<2번> 이번에는 문과 해설사와 학생들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견학을 온 학생들이 내는 갑탄사 등과 같은 약간의 소음 후)

해설사 :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덕수궁의 중심 건물인 중화전입니다. 이곳은 임금님께서 신하들과 조회를 하던 곳이지요. 건물 안을 살펴볼까요? 저기 있는 의자가 바로 임금님께서 사용하시던 어좌입니다.

남학생 : 와~ 정말 화려하다. 그런데, 의자 위에 저 지붕 같이 생긴 건 뭐죠?

해설사 : 아, 단검이요~. 단검은 어좌 위의 천장에 설치해 놓은 것인데..... 혹시 사극에서 임금님께서 행차하실 때 쥘 드리던 큰 우산처럼 생긴 거 본 적 있나요? 그걸 산개라고 하는데 단검은 그 산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럼 이번엔 어좌 뒤의 나무로 된 작은 병풍을 볼까요? 저것은 곡병이라 하는데, 임금님을 상징하는 용무늬

를 새겨 넣었죠.

여학생 : 아~ 그런데, 곡병 뒤의 저 그림은 뭐죠? 다섯 개의 산이 그려진 것 말이에요.

해설사 : 저 그림은 일월오악도라고 하는데, 해와 달, 그리고 다섯 개의 산봉우리를 그렸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죠. 일월오악도는 임금님이 계신 곳에만 둘 수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저 그림의 해는 임금님을 상징해서 임금님의 덕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음을 뜻하지요. 또한 해와 달, 그리고 다섯 개의 봉우리는 음양오행사상을 담고 있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어좌를 둘러싸고 있는 난간이 보이죠? 저것은 보란이라고 하는데, 어좌 주위를 감싸서 화려하게 꾸미는 역할을 하지요. 자, 이제 더 궁금한 건 없나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 볼까요? 어좌와 주변 장식물 중에서 음양오행사상을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2. [출제의도] 대화에 나타난 정보 확인하기

문과 해설사의 질문은 어좌와 주변 장식물 중 ‘음양오행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문과 해설사의 설명에서 해와 달과 다섯 개의 봉우리가 그려진 일월오악도(㉔)가 음양오행사상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번>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프닝 음악)

안녕하세요? ‘생생 시사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골디락스’라는 말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디락스’는 원래 영국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녀의 이름입니다. 어느 날 ‘골디락스’는 숲 속을 헤매다가 곰 세 마리가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골디락스’는 거기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히 따뜻한 수프를 골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소녀가 먹기에 알맞은 온도의 수프를 골랐다는 점에 주목해서 ‘적당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골디락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에서 ‘골디락스 경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적당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또한 마케팅 분야에서 ‘골디락스 프라이싱’은 가격이 아주 비싼 상품과 싼 상품, 그리고 중간 가격의 상품을 함께 진열해서 중간 가격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판촉 기법을 말합니다. 이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평균값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한 판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에서 ‘골디락스 행성’은 태양과 같은 항성으로부터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궤도를 돌아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는 행성을 의미합니다.

3. [출제의도] 방송을 듣고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이 방송에서는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여러 분야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어떤 분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㉑ ‘골디락스 프라이싱’은 중간 가격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판촉 기법으로, 극단적 선택보다는 평균값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한 판매 방법을 가리킨다. ㉒ ‘골디락스 경제’는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적당한 상태를 의미한다. ㉓ ‘골디락스’는 영국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인공 소녀가 곰 세 마리가 사는 집에서 적당히 따뜻한 온도의 수프를 골랐다는 것에 주목해서 생긴 것이다. ㉔ ‘골디락스 행

성’은 태양과 같은 항성으로부터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궤도를 돌아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는 행성을 의미한다.

<4번~5번> 이번에는 어느 학교 학생회의 토론회 중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지금부터는 차기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출 시, 두 후보가 한 팀을 이루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학생 : 저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도입에 찬성합니다. 회장 및 부회장 후보가 따로 출마하는 지금의 방식에서는 각자 공약을 마련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현실적으로 시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러닝메이트 방식에서는 회장과 부회장 후보가 팀을 이루어 공약을 마련하고 선거 운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학생 : 저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도입에 반대합니다. 만약 후보로 나서고 싶은데 팀을 이룰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이럴 경우에는 입후보 자체가 제한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투표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회장과 부회장 후보 중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러닝메이트 방식은 출마자와 투표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예, 출마자 및 투표자의 측면에서 러닝메이트 방식 도입에 대한 대립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럼 러닝메이트 방식이 학생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생 :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당선된 회장과 부회장은 출마 단계에서부터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된 후에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학생회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학생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학생 : 물론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과 부회장이 출마 단계에서부터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학생회를 운영할 때 독단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므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후보자들이 따로 출마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학생 : 학생회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립되는 공약을 가진 후보자들이 회장과 부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심각한 의견 충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해 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를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출제의도] 토론자들이 내세운 논거 파악하기

반대 측 토론자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당선된 회장과 부회장이 학생회를 운영할 때 독단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을 뿐, 학생회 내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여학생은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에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 상대의 견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학생의 첫 번째 발언에서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러닝메이트 방식이 후보자와 투표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의 두 번째 발언에서도 회장과 부회장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될 경우 학생회를 운영할 때 독단에 빠질 수 있음을 물음의 형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쓰 기]

6. [출제의도] 연상 내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킬링 경기 시 상대의 '스톤'을 밀쳐 낼 수 없는 구역인 프리가드존이다. 여기에서 '모듬별 과제 수행 시 주안점'에 대해 연상했을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다른 모듬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도이다. 따라서 '과제 수행 시 모듬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은 ㉠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하기

(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량, 잦은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사용 등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해 정서 불안 등을 호소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나)~3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두 자료를 통해서서는 잦은 인터넷 사용과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 간의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다. ① (나)~1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핀란드 등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수면 시간은 적고, 학습 시간은 많으며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가)와 (나)~1 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량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수면 시간의 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면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과중한 학습량 경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나)~2는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라)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심리적, 가정적, 학교 생활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침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이 두 자료를 통해 학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같은 학교 생활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다)는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나)~3과 (다)를 통해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다)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다)와 (라)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걸림돌의 하위 항목들은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담당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학생자치법정 개회를 위해 배정된 시간 부족,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공간 부족과 시설 미비이다. 이에 따른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내실화 방안은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 실시, 학생자치법정의 개회를 위한 시간 확보,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와 시설 마련이라 하겠다.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내실화 방안으로 '3-다'에서 제시된 '학생자

치법정 운영을 통한 교직 준수 풍토 정착'을 '학생자치법정의 도입에 대한 관심 고조'로 대체하더라도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9.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을 '오랜 추억이다'로 고치면 주술 호응에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앞뒤 문맥으로 보아 우리 반이 6코스 중 제3코스를 선택했다는 내용이므로 '그중'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정확하다'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분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살다'라는 의미이므로 '목적한 곳에 다다르다'라는 뜻의 '도착하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이 '숨이 차올랐지만'의 원인이 되므로 앞 문장과 순서를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여행의 의미를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참된 나와 의 만남'으로 나타내었고, '~의 만남'이라는 구절을 짝지어 대구의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항기로운 추억'에서 감각적 표현이 나타난다. ① 감각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감각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대구의 표현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여행의 의미와 대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걸었다.'에서 '걸다'는 '돈 따위를 계약이나 내기의 담보로 삼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잡다'는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금을 걸었다.'의 '걸다'를 대신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그는 목숨을 걸고 독립 운동을 했다.'에서 '걸다'는 '목숨,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다.'는 의미이므로, '목숨, 명예 따위의 희생을 무릅쓰다.'는 의미의 '내놓다'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서울로 출발했다.'에서 '걸다'는 '기계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다.'는 의미이므로, '전기가 동력이 통하는 길을 끊다.'는 의미의 '끄다'가 반대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어머니는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다.'에서 '걸다'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는 의미이므로,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마음속에 가지다.'는 의미의 '품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에서 '걸다'는 '전화를 하다.'의 의미이므로, '전화 통화의 송수신을 멈추게 하다.'는 의미의 '끊다'가 반대되는 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구개음화 현상 파악하기

일반적으로 구개음화는 'ㅣ'모음 앞에서 일어나지만 자료 ㉠처럼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은 'ㅣ'모음 앞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모음 'ㅣ'가 'ㅣ+ㅣ'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② ㉠에서 모음 'ㅣ' 앞에 'ㄷ, ㅌ'이 있지만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의 자료는 모두 한 형태소로 되어 있고, 따라서 한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③ ㉠에서 보듯 두 번째 음절 이후에서도 구개음화가 나타나고 있다. ⑤ ㉠에서 '묻하다'는 'ㅣ'모음 앞에 'ㅎ'이 있어 구개음화의 환경이 아니지만, 'ㄷ'과 'ㅎ'이 축약되어 'ㄷ'이 되면 'ㅣ'모음 앞에 'ㅌ'이 놓이게 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현대시]

[13~16] <출전> 박두진, 「향현(香峴)」 문병란, 「꽃씨」 김명수, 「침엽수 지대」

13.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누거 만년(累巨萬年)'이라는 시어를 통해 '산'이 오랜 시간 동안 억눌리고 움츠린 채 수동적인 모습으로 존재해 왔음을 말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동안 화려한 모습의 '꽃'이 '꽃씨'로 여무는 모습을 내적 성숙의 과정과 관련시키고 있다. (다)에서는 '일월성신 잦은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침엽수'의 의연한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② (나)의 '고이 머물러 가는 빛나는 외로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와 (나)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시 감상하기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여우 이리 등숙'이 미래에는 약자들의 삶을 유린할 강자가 아니라 '사슴', '토끼'와 더불어 평화롭게 화합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기를 염원하는 작가 의식이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시적 소재의 속성 파악하기

⑥는 가을이 되어 화려한 꽃잎이 떨어지고 '꽃씨'로 머물게 되는 존재이며, ⑥는 외부적 환경이나 오랜 시간의 변화에도 변함없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⑤ (나)는 '꽃'이 '꽃씨'로 여무는 과정을 통해 삶의 내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시이므로 ⑥가 시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술한 잎'과 '꽃'의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상태인 가을이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핏빛 꽃들이 '뽕뽕'하는 시기인 ㉠은 아직은 내면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 문]

[17~20] <출전> 이우선, 「리처드 로티」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서 로티가 제안한 '문화적 문화'는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문화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물음들을 통해서 탐색할 수 있는 참된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로티가 문화적 문화를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1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 네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5문단에서 로티는 '문화적 문화'가 사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인식과 신념을 끝없이 채신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연대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삶의 모습 중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모습'은 '문화적 문화'의 특성 중 공적 영역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19.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보기>에는 듀이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라고 보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로티가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구성원의 가치관

이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우리’라는 연대의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대의식의 추구는 듀이가 말한 삶 속에서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20.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1문단에서 ‘모색하다’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알려주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21~24] <출전> 작자미상, 『양산백전(梁山伯傳)』

2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꿈을 꾀 후 추양대가 독백하는 장면이나 신행 도중 양산백의 묘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 무덤이 열리자 기뻐하며 양산백의 무덤에 뛰어드는 장면 등을 통해 양산백을 향한 추양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추양대가 심생과 혼인을 후 양산백을 잊으려 애쓰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추양대는 성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해야 할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B]에서 양산백은 추양대와의 인연을 다하지 못한 채 죽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언급하며 추양대와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공간에 따른 사건 전개 파악하기

㉔는 양산백과 추양대의 혼례가 각자의 시신(육신)으로 되돌아와 환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이때 무덤이 열리고, 무지개가 무덤에 박히면서 다리가 되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므로 양산백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추양대를 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4. [출제의도] 한자성어의 의미 파악하기

㉔은 양산백의 무덤이 열린 후, 무덤 속으로 뛰어드는 추양대를 심생 일행이 붙잡고자 했으나 무덤이 닫혀 추양대를 놓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갑자기 아내를 잃게 된 심생의 입장에서는 ‘명하니 정신을 잃음’을 의미하는 ‘망연자실’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심생이 처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아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교언영색’은 적절하지 않다. ② 아내를 잃은 슬픔을 심생과 함께 나누며 서로 동정할 만한 인물은 없으므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의미하는 ‘동병상란’은 적절하지 않다. ④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인 ‘풍수지탄’은 심생의 부모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심생은 무덤으로 뛰어드는 추양대를 붙잡고자 했으나 놓친 상황이므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의미하는 ‘희희낙락’은 적절하지 않다.

[기 술]

[25~27] <출전> 신윤기, 『생활 속의 전기전자』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이 글에서 접지전극이 금속임을 밝히고는 있으나, 접지에 사용되는 금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설비접지와 기기접지의 차이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전류의 크기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함을 밝히고 있다. ⑤ 접지가 누전 전류를 땅으로 흡수시키는 것이라는 정보는 1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전류는 저항이 낮은 쪽으로 흐르므로, 접지전극의 저항이 인체 접촉저항보다 낮아야 한다. 따라서 감전 사고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설비접지 저항과 기기접지 저항의 크기가 인체 접촉저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이다.

27.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에서 ○○○씨는 손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저항의 크기는 평상시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였고, 전류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저항이 낮아진 만큼 더 큰 전류가 인체로 흘렀을 가능성이 있다. ① 5문단에서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른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누전된 전류가 저항이 큰 접지전극 쪽으로 흘렀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기기 자체의 저항 크기와 접지전극의 저항 크기의 영향 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기기접지보다는 설비접지 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른 것이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 회]

[28~30] <출전> 이준규, 『미시경제학』

28.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기업이 묶어팔기를 하는 궁극적인 동기와 묶어팔기를 할 때 따로 팔 때보다 이익이 더 커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현상에 대한 대비되는 두 관점을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① 1문단에서 ‘묶어팔기’의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A세트 정식’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제를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제시한 ‘따로 팔 때보다 묶어 팔 때 이윤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④ 민서와 동원이의 소비 상황을 가정하여 ‘묶어팔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여 적용하기

햄버거와 감자튀김에 대한 ‘을’의 지불용의 금액의 합은 5,500원이고, ‘갑’의 지불용의 금액의 합은 6,000원이다. 묶어 팔 때에는 두 상품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의 합 중 낮은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으므로 (가)는 ‘을’을 기준으로 하여 묶어 파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게 된다. ⑤ (나)가 두 상품을 따로 팔 때에는 햄버거는 3,500원, 감자튀김은 1,000원으로 가격이 정해지므로 ‘병’과 ‘정’이 모두 두 상품을 구입할 경우, (나)의 수입은 9,000원이 된다. 묶어 팔 때에는 두 상품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의 합이 낮은 ‘정’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이 결정되므로 묶어 파는 상품의 가격은 4,500원이 된다. 이 경우 ‘병’과 ‘정’이 모두 두 상품을 구입하면 (나)의 수입은 9,000원이 되므로 따로 팔 때와 묶어 팔 때의 (나)의 수입은 동일하다.

30.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기

A사는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묵에 낮은 가격을 적용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사는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묶어팔기를 활용하여 가격할인을 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 ④ 묶어 팔 때의 가격은 지불용의 금액의 합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B사는 가격 설정을 위해 소비자의 지불용의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시가 수필 복합]

- 3 -

[31~35] <출전> 권응인, 『산거(山居)』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장현광, 『계상설(溪林說)』

3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하기

(가)는 푸른 산봉우리 옆에 집을 엮고 한가한 맛을 누리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화자가 거처하는 주변 공간의 속성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나) 역시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그려 내고 있는데, ‘조협’, ‘풍암’, ‘금탄’, ‘문산’ 등 공간적 배경의 속성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다)는 작가가 ‘월파친의 동점’에 거처하면서 속세의 잡다함에서 벗어나 그윽하고 고요한 정취를 즐기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작가가 머무는 공간의 속성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나)는 연시조로서 각 수들이 짜임새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 수에서 반복되는 문단 형식, 유사한 종결 표현의 사용, 배경 제시와 화자의 행위의 유기적 관련 등은 작품의 고유한 규칙의 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제8수의 ‘추색’과 제10수의 ‘세모’는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축으로 하여 작품의 법적성을 강화하고 있다. ② 각 수별로 다양한 소재를 바꾸어 가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기

(가)에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이 드러나며, ‘변화한 세상은 꿈에도 가지 않으니’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다)에도 화자가 자연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드러나는 동시에,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속세의 잡다한 일들’이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34. [출제의도] 소재에 대한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가)에서는 ‘시냇물’이나 ‘바위’ 등의 자연적 소재를 통해 자연을 벗하며 호젓하게 사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도 ‘낙대’나 ‘옥진금취’ 등의 소재를 통해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이러한 소재들에 대해 즐거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8수의 ‘집’은 속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화자가 이를 ‘있고 있노라’라고 한 점에서 볼 때, 화자가 ‘집’에 대해 즐거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5. [출제의도] 외제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기

<보기>의 정보를 통해 (다)의 작가가 명리(名利)와 출사를 포기하고 자유로운 자연환경에서 성리학적 원리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정치 참여의 길에서는 멀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가의 면모는 (다)에서 작가가 자연에 거처하며 ‘계상’에 의지하여 속세의 잡다한 일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며, 동시에 집착하여 얽매이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를 궁구하고 있음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부더운 여름에는 비좁은 당(堂)에 사람은 많고 파리와 벌레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라는 구절의 맥락으로 볼 때, ‘파리와 벌레’가 여름의 더위와 함께 화자를 괴롭히는 부정적 요인임을 알 수는 있지만, 정치 참여에 대한 작가의 거부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언 어]

[36~38] <출전> 이관규, 『보조동사의 생생과 논항구조』

3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보조동사의 논항구조’라는 개념을 통해 고등학교 문법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인 ‘필수성분’과

‘서술어의 자릿수’의 개념에 새롭게 접근하도록 돕고 있다. 2문단 첫 문장에 ‘논항구조는 서술어, 특히 본동사의 의미 특성과 관련이 깊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① 서술어는 논항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논항구조는 서술어의 의미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④ 제2유형의 본동사와 보조동사는 논항구조가 같을 수 있다. ⑤ 제2유형의 본동사와 보조동사는 필수성분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중심 개념 적용하기

논항구조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들의 의미 역할 집합을 말한다. 다른 문장의 논항구조는 [행동주(A), 대상(T)]인데 비해 ‘신사는 소년을 양자로 삼았다.’라는 문장은 서술어 ‘삼았다’를 중심으로 (‘행동주’)는 (대상)을 (‘양자’의 의미 역할)로 삼았다.’로 분석되므로 [A, T] 이외에 ‘~로’라는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① ‘우리는-A, 우유를-T’로 논항구조는 [A, T]이다. ② ‘새가-A, 노래를-T’로 논항구조는 [A, T]이다. ④ ‘소녀는-A, 책상을-T’로 논항구조는 [A, T]이다. ⑤ ‘그는-A, 푸 한 다발을-T’로 논항구조는 [A, T]이다.

3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의 a에서 ‘가져가’의 논항구조는 [A, T]이며 ‘버렸다’의 논항구조도 [A, T]이다. 따라서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논항구조가 일치하므로 a는 제2유형에 해당한다. b의 ‘맡겨’의 논항구조는 [A, T, G]이며 ‘보았다’의 논항구조는 [A, T]이다. 그런데 b는 [A, T, G]의 논항구조이므로 본동사의 논항구조와 일치한다. 따라서 보조동사의 논항구조가 문장의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제1유형에 해당한다. c의 ‘만들어’의 논항구조는 [A, T]이며, ‘바쳤다’의 논항구조는 [A, T, G]인데 c의 논항구조는 [A, T, G]이다. 따라서 보조동사의 어휘의미가 남아 있어 문장의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제3유형에 해당한다. b의 ‘보았다’는 제1유형에 해당하므로 문장의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① 제2유형의 보조동사는 본동사와 보조동사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 b의 ‘과장에게’는 도착점(G)으로, 보조동사 ‘보았다’의 필수성분이 아니므로 ‘보았다’의 논항구조와 관련이 없다. ④ c의 ‘바쳤다’를 생각하면 “제단사는 임금님께 옷을 만들었다.”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⑤ c의 ‘바쳤다’는 도착점(G)인 ‘임금님께’를 요구하는 어휘의미가 남아 있다.

[예 술]

[39~42] <출전> 신상미 외, 『라바노테이션·키네토그래피 라반』

39. [출제의도] 글의 주제에 맞는 제목 찾기

이 글은 전체적으로 무용기록의 방법에 대해 ‘라바노테이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제에 ‘무용기록의 방법’을, 부제에 ‘라바노테이션’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이 글에서는 보표가 음악 악보의 오선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언급은 있으나, 음악 악보와의 차이를 서술하지는 않았다. ③ 이 글에는 ‘라바노테이션’의 변화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어떠한 무용기록법도 아직 완벽하게 인간의 움직임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 글이 ‘라바노테이션’의 한계를 중심 내용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에서는 무용의 기록 방법만 다루고 있을 뿐, 다양한 예술 분야의 기록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오른쪽과 왼쪽 지지대 모두에 기호가 없어 일차적으로 점프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점프한 상태에서 왼발은 ‘앞으로’, ‘낮게’ 뻗어

야 하며, 오른발은 ‘뒤로’, ‘낮게’ 뻗어야 한다. 오른발은 ‘앞으로’, ‘높게’ 뻗어야 하며, 왼발은 ‘뒤로’, ‘낮게’ 뻗어야 한다.

41.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 비교하기

1문단에서 ‘라바노테이션’은 시각적인 기호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① 1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라바노테이션이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② 1문단에서 ‘목적과 실행이라는 방법’은 오랜 역사 동안 무용가들이 의지해 온 방법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④ 무용이 창조의 순간에 소멸되는 예술이므로 목적과 실행이라는 방법 역시 시간의 제약이 따르게 된다. ⑤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어떠한 무용기록법도 인간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42. [출제의도] 어휘의 함성방법 이해하기

㉠은 ‘오른’이 ‘팔’을 수식하는 구조를 지닌 함성어에 해당한다. ‘첫인상’의 경우에도 ‘첫’이 ‘인상’을 수식하는 구조를 지닌 함성어이다. ② ‘밤’과 ‘낮’이 대등하게 결합된 함성어이다. ③ ‘열다’와 ‘닫다’가 대등하게 결합된 함성어이다. ⑤ ‘오르다’와 ‘내리다’가 대등하게 결합된 함성어이다.

[현대소설]

[43~46] <출전> 하근찬, 『홍소』

43.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글에는 ‘군청 병사계’라고 적힌 편지를 찾아 넷물에 띄워 버리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관수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① 이 글에는 종락 이전 넷가에서 편지를 버리는 장면과 종락 이후에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한탄하는 장면 정도만이 제시되어 있어 잦은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② 이 글에서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⑤ 이 글은 공간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파악하기

<보기>에서는 하근찬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언급하고, 이러한 특징이 웃음이라는 특정 행위를 통해 나타나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은 전사 통지서를 넷물에 띄워 버리며 통제하고 후련한 심리를 웃음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하근찬 소설의 인물은 현실에 대해 저항 의지를 드러내 보이지만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관수 역시 편지를 버리며 비극적 상황에 나름대로 저항해 보지만, 자신이 한 행위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의 시원한 웃음에서는 나름대로의 저항에 대한 만족감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에는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죽어 가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관수의 거부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부정적 현실에 나름대로 저항해 왔지만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관수의 현실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서사 과정 파악하기

[공간2]의 ㉢는 넷가에서 정검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져 실수로 편지를 넷물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는 관수가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에는 관수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으며 [공간3]의 ㉣에서 약화되는 것도 아니다. ① [공간1]에서 관수는 낚시를 마쳐 [공간2]에서 넷가의 정검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지는 실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편지를 넷물에 떨어뜨리게 된다. ② [공간2]에서 관수가 ㉢와

같이 넷물에 편지를 떨어뜨리고 또 ㉣와 같이 의도적으로 편지를 넷물에 띄워서 버리는 행위는 이전 성실하게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관수의 행위와는 다른 모습으로 사건 전개 과정에서 새로운 긴장감을 형성한다. ③ [공간3]에서 관수는 우편배달부의 직위에서 면직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는 [공간2]의 ㉣에서 편지들을 의도적으로 넷물에 띄워서 버리고 이를 우체국 국장이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⑤ [공간1]의 ㉡에는 전사 통지서를 배달해야 하는 괴로움이 담겨 있으며 [공간2]의 ㉣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한 통제함, 후련함 등이 담겨 있다.

46.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관수는 실수로 넷물에 빠뜨린 편지를 건지기 위해 쫓아갔다가 편지 겉봉투에 적힌 ‘군청병사계’라는 글자를 보고, 편지를 잡으려던 행위를 멈추며 물에 흠뻑 젖는다. 이는 염서 한 장을 무책임하게 버린 일이 없던 관수의 이전 모습과는 다른 행동으로 여기에서 ‘군청병사계’라는 글자는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③ ㉢는 관수의 욕망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을 보고 편지를 넷물에 띄워 버리는 행위가 관수의 내적 성숙으로 이어지는지는 않는다.

[과 학]

[47~50] <출전> 김상구 외, 『최신유전학』

47. [출제의도] 글의 중요 개념 이해하기

3문단에서 프라이머가 중합효소 연쇄반응 시 복제하고자하는 DNA와 결합하여 DNA복제의 시작점이 된다는 내용, 4문단에서 dNTP는 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DNA를 구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내용, 5문단에서 DNA 중합효소는 DNA의 염기서열을 읽은 후, 이와 상보적인 염기를 지닌 dNTP와 프라이머의 결합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을 통해 ㉠은 ‘복제의 시작점’, ㉡은 ‘DNA의 재료’, ㉢은 ‘반응 촉진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다.

4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분리된 한 가닥 DNA와 프라이머가 결합한 후 DNA 중합효소가 프라이머에 붙으면서 복제를 준비한다. 이전 단계에서 분리되었던 두 가닥의 DNA가 다시 결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9. [출제의도] 심화 과제 설정하기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란 DNA 중합효소라는 촉매를 통해 DNA를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복제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나,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걸리는 구체적인 시간을 알아보는 것은 심화학습 과제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① 2문단에서 아테닌은 구아닌과 결합함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네 가지의 염기가 DNA 내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DNA 중합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온도는 70~72℃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과 5문단의 내용을 통해 프라이머에 dNTP가 결합하여 또 하나의 DNA 가닥을 완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머의 길이는 복제 대상 DNA의 길이보다 짧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50.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는 ‘차연이나 인간 파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 증상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일어났다.’의 ‘일어났다’ 역시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이 되어 어떤 증상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므로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하다.